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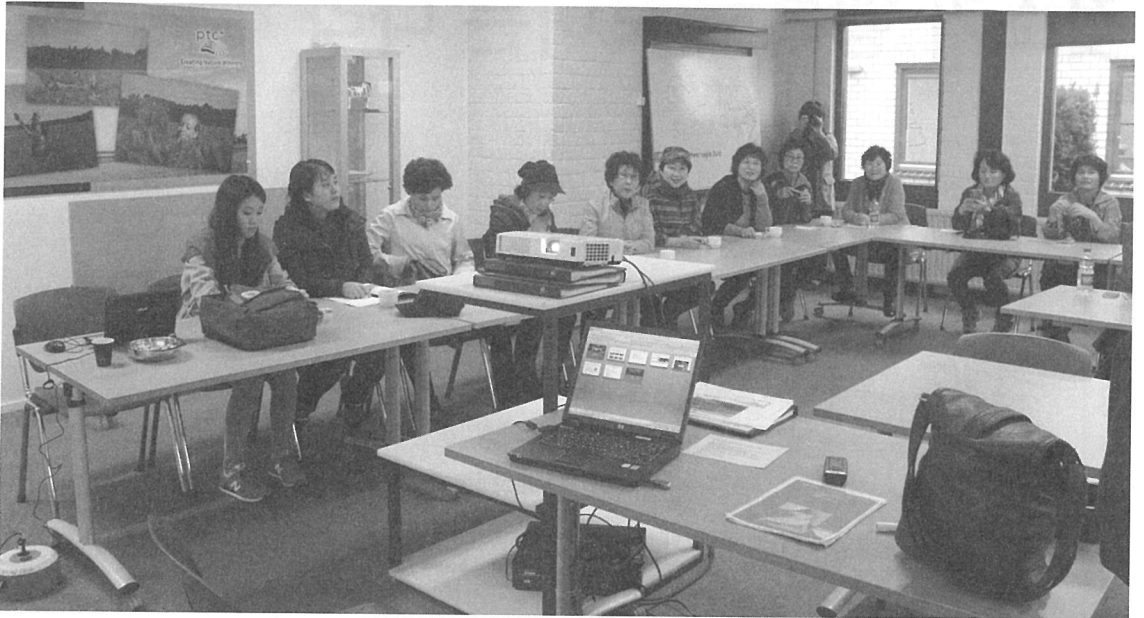
우리의 경쟁력을 확인한 기회

신 상 미 제주 제주시 건준목장

설레는 마음으로 짐가방을 꾸렸다. 꿈에도 그리던 동경의 나라였고, 책을 통하거나 TV를 통해서 습득된 단편적인 모습들을 나름대로 그리던 곳이기에 관광이 아닌 선진 낙농시스템을 견학하고 낙농 교육프로그램 참관과 더불어 여성 낙농인의 체계적인 농업 경영관리 지식을 습득하는 등의 목적이 있는 일정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짐짓 의연한 척, 설레지 않은 척, 조용히 가방을 챙겼다. 트렁크에 넣어서 함께 데려가 달라는 친한 언니의 말을 뒤로하고 드디어 유럽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긴 비행 끝에 도착해서 직접 본 유럽의 몇 개국인 독일과 네덜란드, 그리고 스위스와 영국은 서로의 차이점들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나라와 확연히 다른 자연환경이 내 눈에 확 들어왔고, 방문한 여러 농가와의 질의응답들을 통해서도 우리와 다른 국가정책과 환경 때문에 낙농 사양관리도 판이하게 달랐다. 농후사료 급여 위주의 우리와 달리 넓은 초지에서 방목을 통한 조사료 급여가 주를 이루고, 조금 둔화되어 가공품이 증가되는 상황이긴 해도 아직도





음용유 위주의 소비가 주를 이루는데 이들은 가공유 소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서 경제적 효율이 높은 것 같았다.

독일의 유기농우유를 생산하는 농가에서 분뇨를 이용한 바이오 가스를 통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현장과 그 전기를 이웃 농가들에게 매우 싼 가격으로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대체에너지 생산에, 국가적 차원에서 축적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그래도 지하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 하여서 병들어가는 지구를 치유하는 일에 보탬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함이 그저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길 소망해본다. 우유의 안전성이나 품질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엄격히 적용이 되고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우유를 생산한다는 사실 또한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피곤이 눈덩이처럼 몰려와 고단한 시간, 또 어둠이 내려앉은 밤하늘을 날고 있다. 시간이 모호한 오늘이 지나면 보고 싶은 남편과 두 아들이 있는 내 나라, 내 집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짧은 떠남을 통해 배우고 성숙되어지는 시간들과 낙농이란 공통의 끈으로 묶여 있어 더 가까워 질 수 있었던 소중한 인연들! 그래서 나는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하다. ☺